

**舊 언어영역 & 일반에게 국어 문제풀이란?**  
(당신의 수능 국어가 안 되던 이유)

**정보화 혁명 시대**

문제 풀이 사고의 흐름

- ① 지문을 '나름대로' 읽고(독), 이해(해)하고,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 한다.
- ② 기억한 지문 내용에 근거 하여 선지 하나 하나의 정오를 판단(주장)한다
- ③ 그 과정에서 기억이 애매하면, 지문으로 돌아가 선지 판단의 근거를 찾고, 선지를 판단한다.
- ④ 단어 하나, 숫자 하나 틀려서 실수하거나
- 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 ⑥ 이해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거의 그냥 찍거나
- ⑦ 겨우 겨우 정답 찾아 넘어가거나

위의 사고 흐름 및 문제 풀이 흐름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 중 극히 일부 즉, 주장(선지 판단) + 근거(지문 내용 근거) 라는 '논리적/논증적'사고'만 하는 수능 도입 초기의 관점 차원. 즉, 30년 가까이 지난 구시대적 관점 & 정체된 관점.

27년 차. 수능 초창기 수준의 관점 (1994~2021) 전근대. 조선 개항 = 강화도 조약 1876 일군 수준. 조선 멸망 시작 = 한일협약 1904 28년 차

개화기 조선, 전근대적 삶을 살 것인가 시대에 적응, 생존, 번영을 이를 선택을 할 것인가. 수능은 논리 시험이다? (구시대 발상) no! 수능은 논리적 사고를 포괄하는, 정보처리 능력 전반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신시대 발상)

End game.

D-1 그리고 수능 시험장 아침 리허설. 반복과 체화 통해 시험장 몰입을 이끌어 내세요. 당신의 수능 국어 잠재성과 그 현실. 백분위 100.

B<sub>e</sub>fore A<sub>n</sub>yone E<sub>l</sub>se와 **초격차** 국어하세요

**新 수능 국어영역(개정교육과정)&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mind set**  
(당신의 수능 국어 유일한 해답)

**4차 산업 혁명 시대**

수능 국어 영역의 성격

= 국어과 + 도구교과 성격 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능.력** 측정 시험

이성적 정보처리 - 비문학

감정적 정보처리 - 문학

정보의 내용 파악 중심 출제 - 독서

정보의 구조 파악 중심 출제 - 화작문

'국어과' 성격의 논리적 사고 - 문법

글 = 문자 (구시대 관점)

그렇다면? (4th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관점)

글 = TEXT = 정보전달 수단 = 매체

글 = 표, 그래프, 도식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그래서 평가원은 독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음

총체적인 **정.보.처.리.능.력**

그렇다면?

평가원이 의도하는 실전적 정보처리 의도

전제 1. 80분 45문제 = 시험은 기본적으로 타임어택

전제 2.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없다면 결국 의미 ↓

\*80분 45문제 = 시험은 기본적으로 타임어택

전제 3.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 = 이 시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평가원의 수능 시험에 대한 mind set

① TEXT의 구성원리에 기반하여(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② 정보가치 판단 바탕 주제 중심으로 정보처리하며

③ 정보가치와 주제는 구조와 의도에 따라 결정됨

즉,

1. 주제(정보가치↑ 내용) 중심으로,

2. 정보간 구조와 관계 파악을 하며,

3. 의도와 설계를 바탕으로

4. 처리 된 정보 / 이해된 정보에 기반하여

5. 출제자가 의도한 사고 흐름을 잡으면

6. 정답 선지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나의 사고 절차

# 1p 정보전달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지문 설계 - 독서 내용+구조
2. 1st 문항설계 = 주제+전개방식(내용<구조)
3. 2<sup>nd</sup>~3<sup>rd</sup>문항설계에 따라 막히면?

⇒ 구조에 집중

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이.제.는

**정보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

4. 괄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다수 중요
5. 신유형이라 판단되면?

⇒ 구조에 무조건 집중

cf) 청중의 반응

정보처리규격 : Q(의문), 경험, 배경지식, 긍정/부정 가치판단, 의문, 추측, 추론 ... 처리

cf) 자료 활용

지문의 주제-구조 연결임. 절대 새로운 내용 없으며, 지문의 주제-구조에 따른 정보처리를 얼마나 평가원의도에 맞게 처리했느냐의 싸움

6. 지문 정보처리 규격 ex) 인사말, 출처, 서적 인용, 전문가 견해, 수치 통계 자료, 등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배인호t 실전tip.

## 1. 괄호에 집중하라

- 문항 설계상 '괄호 = 화법의 특징적 정보구조'
- 따라서, 현재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은 '(괄호)=정답선지 관련 확률 100%

## 2. 막히면 내용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

- 내용 처리는 이미 독서에서 충분히
- 따라서, 내용+구조라는 정보의 요소 중
- 구조 처리 능력을 화작에 출제-설계하기 시작하면서,
- 화작 난이도, 시간, 정보량 모든 부분에서 폭발
- 대부분의 기존 접근 틀 / 학생들은 적응 못함

## 3. 더 이상 논리'만'묻는 시험이 아니다.

## 4. 정보처리 능력 = 정보가치 판단 + 정보구조 처리 = 압도적 정보량 처리능력

수강 결과.

10주 이상 수강생 10문항 평균 풀이시간 17분 -> 8분

10주 이상 수강생 98% 7분30초 이내 + 정답률100%

# 2~3p 상호작용의 화작 통합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대화(상호작용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 전환 + 여전히 **구조, 전개방식** 집중처리

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 접근으로 시간, 발체독 횟수 대폭 감소 필요

3. 특이유형 cf)고쳐 쓰기 (관련개념 :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

- 정답선지- 맞춤법확률5%미만(그것도 언어영역시절)

- 정답선지- 글의 구성 원리 80%

- 정답선지-macro 문법파트(그 중 문법요소파트)15%

-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 원리에 초점 두고 지문 뚫기

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보기> 조건 확인 후 발체/기준 잡아 처리)

cf) 자료활용유형 (원래 작문유형이나 통합형 출제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선지' = 정답

# 3~4p 설득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설문' 유형 특성 작문 유형으로 출제 따.라.서... 묻는 것은 철저하게

## 1. 논증구조

필수 : 주장+근거

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주장+근거 +예시

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감점

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가점

전제+주장+근거+예시+ 예상가능반론+재반박

## 2. 비판 유형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

정답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

정답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서술)

논술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우열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특히 주장)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지만 판단해도 95% 정답.

## 문법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피셜 문법 교수학습목표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1. 절대로 어려운, 심화 개념, 혹은 몰라서 틀릴 개념을 출제하지 않는다.
2. 절대로 교과서 수준의 누구나 다 아는 개념수준에서 나온다. (안 믿기면 얼마든 확인 가능! 14~20기출)
3. 평가원 피셜, 중세국어 교수학습 목표
  - '현대 국어, 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 9개념만 암기. '논리적 사고의 수단'
  - 현대국어 VS 중세국어 비교 추론
  -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 한자어/어휘 문맥추론
  - 거의 정답!
4. 2009개정교육과정 VS 2015개정교육과정
  - 실제 작년 이것으로 복수정답VS정답 논쟁(평가원 연구교수님/평가원에 영향력 있는 교수님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안 보임. **이걸 모른다? = 수능 모른다**)
5. 킬러 문항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즉, **평가원의 출제에도 파악 못해 서임. 대부분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개념과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 이면적 개념 차이**
6. 독서통합형. 독서 아니다. 문법이다. 따라서,
  - 문제부터. 문법 문제 개념 적용하듯이
  - 필요한 개념 위주 정보처리
  - 필요시 독서 정보 구조처리

\*공부하면, 내신 수준 개념 문제는 누구나 다 맞음.  
\*문제는, 킬러/독서통합/중세국어.  
\*문법은 개념/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 측정목적

## 고전시가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서정장르 접근법 베이스
  2. 소리나는대로 속발음, 한자어/문맥 추론
  3. 전형적 주제
- cf)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충+효, 충=연군지정, 충=관직 나가야지 = 시험치려면 학문 해야지 - 학문=수양 해야지 = 학문=수양하려면=자연친화 - 자연친화 하다보면 또 물아일체. 매우 뻘함
- cf) 고려가요 - 삼분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
- 근데 이딴 개념 1도 안 중요함. (시대에 따라 개념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학계 흐름이 있음. 올해는 아님)
- \*시랑 똑같은. 나라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아! 관직 나가고 싶구나, 근데 자연도 좋구나, 방향했겠네. 자연 놀다 보니 좋구나,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맨날 이런 거임.
-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 게 출제 목표

##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비문학(=이성) + (문학=감정) = 완전한 인간

cf)15수능 칸트 미감적 판단력. 주관적 보편성. 미감적 공동체 → **문학적 관습**

문학을 왜 하냐고? '국어'시험이니까. 논리학 시험 아님!

서정장르 교수학습 목표 : '공감능력 향상'

= 정전교육목표. 따라서...

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느낌,생각,태도,반응)
  -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2.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3. 전체 구조, 시상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체득
  -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 문학'서사'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
- \*\*\*첫부분 구성 잡기. 인물 사건 배경 preset 잡기
- \*인물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 시킴
-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 \*그럴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
- \*주제는 매우 전형적 서사 흐름 + 구조

## 21-9평 오답률 top1 비평교육&이본교육

현,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취 출제 배경

1. 해석상 미학적 근거 + 문학 교육 목표 합치
2. 문학적 관습의 논리적 근거 확립

## 독서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위치 : 첫단락 + 첫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표지 (지시/연결),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가치 높음

### 독서가 막히는P(problem)이유C(cause)는?

1. 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님. 평가원 지문 문제임!
  2. 정보압축, 생략, 변형, 기출/ebs연계 과정에서 왜곡  
⇒ 결국 지문의 논리적 모순, 정보량은 폭발.
- \*4차 산업혁명 특징에 맞는 정보처리 요구  
\*제발 좀 1994학년도 시절의 정보처리 방법 언어영역 요구 능력 vs 현 수능 국어영역 요구 능력 혼동 좀 그만. 이젠 논리'만' 묻는 시험 아님. 일치, 1:1 대응 죄다 '라떼는'유형.
- 그 결과 시간 부족 + 20-6월 만점자 65명(대치동 200명 마감반에 만점자 1명도 없음. 뭐하심?? 4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는데? 갑갑...답답...)

## S(solution)독서가 막히면? 이렇게!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 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
1. 80분 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
  2. 그런데 정보 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불충분
  3. 완결성 떨어지는 지문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나눔.

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

뭔 상관임? 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  
수능 지문도 똑같음. 절대로 모든 지문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 낸 이유 좀 생각. 언제까지 언어영역 시절 문제 접근법을 쓸거임?

해법은?

1.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2. 구조, 처리
  3.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 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로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 처리 됨.

## 경제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 심지어 교육청 연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금융'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  
2018-6 통화정책 (이 지문부터 특이점)  
2018-수능 정책수단-오버슈팅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바뀐 1997 IMF의 대표 현상 환율 폭등 현상임)  
2019-9월 CDS-P (기존 경제정책이 쓰레기로 가게 된 2008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생상품임)  
2020-3월 주식회사-순환출자 (본질은 '금융'자본주의의 모순과 태동에 대한 원리임. 이때 나는 3년 안에 나온 다 했는데 3개월 안에 나온)  
2020-6월 대망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정책  
이때 다 터져나감  
2020-수능 BIS 지문(적중)  
올해는? (앞으로 3년내 출제 예상)  
ebs에 '금융'자본주의 주제 꽃음
1. 중상주의-고전학파-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 흐름
  2. Q.E(양적완화)원리 다룰 거임
  3. M.M.T 현대 통화 이론
- 결론은, 위의 경제 변동 원리 인과-흐름 잡자!

## 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 경제 지문 출제의도에서 보이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한글 문맹이 아니라 '실생활지식 문맹'  
관습법 - 판례법 - 대륙법 (법계) 특징

따라서, 보통 법률 지문의 구조와 내용은

1. 예시-원리로 초반부 세팅. 원리 세팅이 중요
2. 원리의 사례 적용
3. 문제는, 성문법 적용 과정에 사례별 문제가 따름
4. 그 해결책

초반부 주제  
예시-원리(법률)세팅

후반부는 P-S  
P-S P-S P-S  
... (계속 반복)  
P-S

지문 구조는 대체로  
왼쪽 구조임  
그런데?  
왜 2020-9  
소유 점유 어려울까?  
하향식 독서모형의  
부재때문!

상호작용식(feat 하향식) 좀 해.  
하향식 독서모형 -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상향식 독서모형 - 단어, 문장, 문단, 글, 글에만 집중하여 정보 처리  
상호작용식 - 둘다

실생활 연결지으면 개 쉬워짐

## 과학기술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 觀點)

2019수능 역대급 지문 우주론 - 과학기술 아님!(A단락 +31번 문제만 과학기술도 아니고 국어과 기반 과학기술 '적'사고)

사실은 철학 지문임

2018-6월 동양철학-법제개혁론

2018-수능 서양철학

2019-6월 서양철학 - 동양전래

2019-수능 서양철학 - 동양전래

이 흐름임. 제발 좀. 우주론? 과학기술? 절대 불가.

그래서 만점148명. 다 수능 터짐. 야..나두. 야..너두?

그렇다면,

최근 평가원 과학기술 지문 특징과 문제 원인

1. 정보량 폭발
2. 완결되지 않은 정보 (생략, 압축, 변형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해결

1.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원리/수학 공식 무조건 처리
4. 때때로 표/도식화/그림 필요

## 문학'기라'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 觀點)

수필

1. 시 + 소설 + 독서 구조 특징
2. 주제 구성 문제 소재 표현 5요소 중
3. 깨달음이 주제. 초반부 흐름에서, 마지막 단락 중요
4. 주제 + 흐름 = 깨달음 잡기

희곡-시나리오

1. 서사장르 기반
2.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함
3. 따라서, 장면상상 필요, 지시문(내면심리), 해설(압축 제시. 정보압축. 정보가치 높아짐) 매우 중요
4. 장면에 대한 상상 필수

## 9평 오답률 top1

### 비평교육&이본교육 정보처리공식

비평문

1. 작품 감상의 절대적 증거 : 비평문>작품내용>보기
2. 문학 개념어 기반 독해
3. 필요시 독서 구조
4. 작품 해석이 제시 ⇨ 철저하게 작품 연결 ⇨ 문항 ⇨ 정답선지

이본교육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작품의 변이, 장르적 변이의 C 원인과, E 결과와, 사고의 절차를 다룸

## 논리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 觀點)

2019수능 가능세계 복수 정답 시비는, 평가원 수능 국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임

최소한, 출제자가 유도한 사고 흐름으로 정답을 골라야 점수를 주는 시험에서 시험 옳니 그르니 같은 논쟁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됨?

물리도, 논리도, 언어도, 경제학도 아닌 수.능.국.어. 즉, 국어교육학 베이스의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인 시험 범위임.

내가 정치, 물리, 의학, 코로나에 대해 떠들면 안 되듯,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능 국어 논리 지문의 특징?

1.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전제
2. '고3' 수준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의 국어사고, 국어에 관련된 논리 내용을 다룸
3. 하지만, 정보량 폭발
4. 완결되지 않은 정보 (생략, 압축, 변형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문제 발생. 해법은?

1.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1과 2를 바탕으로 이해한 원리 적용
4. 정보 관계/구조 중심 필수 처리

## 철학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 觀點)

과학기술 지문 내용에서 보이듯

철학의 지문의 흐름은 위에서 언급 + 계속 이어지는데

철학 ⇨ 현상 만들

따라서, 현상의 본질이고, 이 시대정신들 통찰하길 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바람.

동양 = 서양철학 비교대조 및 발전흐름

예를들면

관념론으로 시작했던 인류의 사상은

신학-철학-자연과학으로 이어지며 발전

특히, 경험주의/경험론의 발달로 지금의 변화를 가져 온

문제는 동양은 쇠국하다가 노피셀하다 망함. (청/조선)

이 = 형이상학 = 원리, 진리, 이상, 도덕, 신, 이데아, 성리학

기 = 자연과학 = 사물, 대상, 구체, 교정 대상, 성리학 미만 잡다학문

이 흐름 잘 잡으실 것.

특히나 2019 수능 역대 지문인 우주론은 위 흐름임

B<sub>efore</sub> A<sub>nyone</sub> E<sub>lse</sub> 와 최후까지  
**초격차** 국어하세요